



즉시 배포용: 2018 년 9 월 2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정책 조언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태스크 포스 팀](#), 첫 번째 공청회 개최

해당 공청회는 주정부의 대응 상황에 관해 업데이트하고, 다음 고위험 지역사회의 의견 청취 세션에서 추가 권고 사항을 제시

주 전역에서 실시된 의견 청취 세션에서 고위험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 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해 초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표한 종합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 월 [태스크 포스 팀](#)이 창설된 이래로, 뉴욕주는 지난 화요일 첫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공청회는 이니셔티브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뉴욕주 전역 고위험 지역사회에서 실시된 의견 청취 세션에 대한 결과를 토의하고 추가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여성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청취 세션과 태스크 포스 팀 공청회는 뉴욕주 의료 시스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인종간 보건 격차를 해결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보다 튼실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창의적인 해결책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폭넓은 인종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뉴욕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출산 시 사망할 확률은 백인 여성보다 약 4 배 높아 다른 주에 비해 훨씬 격심한 보건 격차를 보이며, 이는 전혀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산모 사망률 감소 태스크 포스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모든 여성들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산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여,

모든 어머니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화요일 공청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태스크 포스 팀은 산모 보건 향상, 인종 및 경제적 격차 해소, 뉴욕주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감소에 관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계속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 태스크 포스는 업계를 선도하는 의료 전문가, 주지사 비서관,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 Melissa DeRosa 의장, Kathy Hochul 부지사, 뉴욕시 공익 대변인 Letitia James 및 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지명 위원, Carl Heastie 하원 의장, John Flanagan 상원 다수당 대표, Brian Kolb 하원 다수당 대표뿐 아니라 기타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됩니다. 태스크 포스를 이끌어 나가는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Howard Zucker 의학박사 겸 법학박사, 뉴욕주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
- Sascha James-Contarelli, DNP, CNM, LM, 뉴욕주 인증 산우 도우미 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Licensed Midwives) 회장
- Danielle Laraque-Arena, MD, FAAP- 뉴욕주립대학교 업스테(SUNY Upstate)이트 회장
- Wendy Wilcox, MD, MPH, 킹스 카운티 NYC Health and Hospitals 산부인과장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46 위를 기록한 2010 년 이후부터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30 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출산 시 사망할 확률이 약 4 배나 높고, 뉴욕주에서는 약 3 배나 높기 때문에 인종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여전히 고학력 흑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고졸 이하의 백인 여성의 산모 사망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가 뉴욕주 전역의 고위험 지역사회에서 개최된 일련의 의견 청취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즈, 할렘, 올버니, 시러큐스, 버펄로에서 개최된 의견 청취 세션에서 임산부를 비롯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여성들의 일상적인 산전 건강 관리를 저해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전자간증 및 임신 중독 증상과 산모 사망률 및 이환율의 기타 증상에 대한 인식을 크게 고취시킬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화요일 공청회에서 추가로 논의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 설립 -- 주지사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권고에 따라, DOH 는 산모 사망 조사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뉴욕주 전역에서 여성과 어머니의 다양성을 대표 및/또는 이를 위해 봉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중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미국 산부인과 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와 뉴욕시와 협력하여 뉴욕주에서 각 산모 사망 사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2019년 초 소집될 예정인 이사회는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을 줄여 산모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DOH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특히 인종 및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

병원과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하는 모범 경영 회담 발족 -- 주지사는 그레이터 뉴욕주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뉴욕주 보건 협회(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ACOG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모범 경영 회담을 개최하여 인종간 격차를 비롯한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문제를 논의합니다. 해당 회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산모 보호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조치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통계, 모범 사례, 지역사회 인식, 의과대학 교과 과정, 의학 대학원 교육 및 개업의 훈련을 다룰 예정입니다.

산후 도우미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시범 프로그램 시행 -- DOH는 2019년 초 산후 도우미 메디케이드 지원을 확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산후 도우미는 출산 전, 도중 또는 출산 후 필요 시 도움을 주는 비의료 출산 도우미입니다. 공인 산후 도우미는 엄마와 아기의 출산 합병증 감소 등, 긍정적 건강 예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과정 설명 프로그램 지원 -- 뉴욕주는 주지사의 시정 방침인 생후 첫 1000일 이니셔티브(First 1,000 Days of Life Initiative)에 포함된 임신 과정 설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전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결합하여 임산부 건강 예후를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조산 및 저체중 발생 빈도 감소, 임신성 당뇨병 및 산후 우울증 발병률 감소, 모유 수유율 증가 및 임신 간 휴지 개선과 관련됩니다. 아울러, 임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조산아 출산율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의료 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 요청 -- 주지사는 뉴욕주 의료 위원회(State Board for Medicine)에 지시하여 해당 개업의에게 산모 사망률/이병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 대한 지속적인 의학 교육에 참여하라고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DOH는 뉴욕주립대학교의 4개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산모 사망률/이병률 및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자료를 의과대학 교과 과정, 의학 대학원 교육 및 개업의 훈련 자료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뉴욕주립대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 활동 전반을 조정할 주 전역의 실무 그룹을 발족하였으며, 커리큘럼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조언할 핵심 전문가를 발굴하였습니다.

주산기 진료 품질 증진 협력 확대 -- 뉴욕주는 주 전역 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출산 시 출혈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임상 지침을 시행합니다. 80개 이상의 병원이 해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보건부가 이를 주도

및 조정합니다. 본 협력으로 산모 출혈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처치 기준과 뉴욕주 전역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될 임상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 사망률 및 인종간 격차 감소 태스크 포스를 이끌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당 태스크 포스는 주 전역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필수 이니셔티브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지사님의 헌신이 모두를 위한 보다 건강한 뉴욕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원 보건 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Richard N. Gottfrie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산모와 신생아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주의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인종적,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공중 보건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과 신생아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능한 의료 전문가가 앞장서서 보건 성과를 개선하고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스크 포스 팀은 오랫동안 간과하였던 산모 사망률 문제에 집중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태스크 포스 팀의 업무를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보건부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